

을 보면서 비탄에 잠겨 지내다가, 결국 며칠 후 우리 집에 찾아왔네. 그는 풀죽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어.

“내 동생이 떠납니다. 벌써 여행을 떠날 준비를 마쳤어요. 우리 집에 와주세요, 부탁이에요. 아저씨의 두터운 신망을 이용해서라도 비르지니네 어머니 마음과 우리 어머니 마음을 돌리고 비르지니를 여기 붙잡아 주세요.”

폴의 간절한 부탁에 나서긴 했지만, 나는 내가 아무리 타일러도 효과가 없으리라 확신하고 있었네.

머리에 붉은색 머릿수건을 두르고 뱅골산 파란 직물로 옷을 지어 입은 비르지니도 매력적으로 보였었지만, 이 나라에 사는 부인들처럼 차려입은 모습은 또 완전히 달라 보였지. 그 아이는 분홍빛 태피터로 안감을 댄 하얀 모슬린 드레스를 입고 있었네. 높은 허리선에서 이어지는 가녀린 허리는 코르셋 안에서 완벽한 윤곽을 드러냈고, 두 갈래로 땀은 금발 머리는 순결한 얼굴과 어우러져 감탄을 자아냈어. 아름다운 파란 눈은 우수를 가득 머금었으며, 억눌린 정염으로 심란해진 마음 때문에 얼굴은 상기되고 목소리는 연정에 사무쳐 울렸네. 원해서 입은 것 같아 보이진 않았지만, 비르지니의 우아한 차림새가 그린 모습과 극명한 대비를 이루면서, 그 아이에게 드리운 애수를 더욱더 눈물겹게 만들었지. 비르지니를 보고 그 목소리를 들으면 누구라도 울컥 북받치는 감정에 빠질 수밖에 없었네. 그런 모습에 폴의 슬픔은 더 커져만 갔어. 아들의 처지에 가슴이 미어진